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지속하며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울처럼 영혼의 힘을 쏟아 부었고,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겼으며,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면 모든 것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헌신과 봉사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육체는 살아 있으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기도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려 기를 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선물입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도하기 위하여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라. 둘째, 기도와 성경 읽기를 잘 결합하라. 즉 성경을 읽고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하라. 셋째,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듭니다.

“저는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이며 그 누구의 죄보다 제 자신의 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내 자아를 죽여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겸손하게 하소서...저는 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은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써서 마지막 날에 내가 잘 살았다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11월의 마지막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❷ 주보 안에 넣어드린 12월 중보기도카드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❸ 주보에 성경읽기를 하시고 말씀 기도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식당봉사 - 8셀 ▶ 다음주 식당봉사 - 9셀

◆ 11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11/13~17	특별새벽기도회
11/19	추수감사주일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조태형 권일석
- 은퇴장로 : 장순산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